

고대중국어 동사화 연구*

李昭東**

◁ 목 차 ▷

- I. 서론
 - II. 명사유형에 따른 동사화 의미구조
 - 1. 인물명사와 동식물명사
 - 2. 器具명사와 衣食명사
 - 3. 건축/장소명사와 신체명사
 - 4. 자연명사와 추상명사
 - III. 고대중국어 동사화의 발생 배경
 - 1. 명사 내부의 의미와 有關한 동사화
 - 2. 명사 내부의 의미와 無關한 동사화
 - IV. 결론
-

I. 서론

명사화와 동사화는 전 세계 언어의 보편적 현상으로, 정확한 표현의 구사와 무분별한 신조어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언어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경제적 단어 활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언어사용에 있어 극도의 경제성을 추구했던 고대중국어에서 명사화와 동사화구조가 빈번하게 출현했음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양자가 서로 상반된 발전 방향을 보이는데, 명사화는 근대, 현대를 거치면서 점점 발전하여 문장 속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반면, 동사화는 몇몇의 명사서술어 용례를 제외하고는 그 자취를 감추었다. 그 원인은 명사화와 동사화의 서로 다른 발생 배경 때문인데, 본문에서는 중국어가 가지는 유형학적 특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2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조교수.

징과 고대중국어의 특수성에서 출발하여 현대중국어로 오면서 거의 자취를 감춘 동사화의 발생 배경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중국어의 동사화는 표현방법으로서의 진술화와 대응하는 통사방면의 술어로, 동사 외 품사들의 동사로의 일시 전환을 의미한다. 고대중국어의 동사화 연구는 과거에는 ‘품사 活用’의 관점에서, 최근에는 ‘진술화’의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학위논문 등을 통한 진술화 연구는 《左傳》, 《史記》에 출현하는 동사화를 분석하여 동사화의 유형, 발생 동인 등의 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명사화와 달리 일정한 형식적 표기가 없는 동사화구조는 텍스트의 정독을 통해서만 식별해 낼 수 있는 관계로 고대중국어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연구가 사실상 힘들며, 이에 따른 연구 성과도 편면적이다.

본문에서는 《古漢語詞類活用詞典》¹⁾에 출현하는 명사 가운데 동사로의 일시 전환 용례가 있는 표제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모두 314개의 명사 및 명사구가 이에 해당된다. 물론 품사 방면에 있어, 기타 품사에서 동사로의 전환 또한 동사화의 범위에 포함되며, 또한 통사위치에 있어 서술어의 위치뿐만 아니라 관형어, 보어의 위치에서도 동사화가 발생하지만,²⁾ 이들 기타 품사에서의 전환이나 관형어나 보어 위치에서 발생하는 동사화는 명사가 서술어위치에서 발생하는 동사화 의미 유형에 대부분 포함되므로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고대중국어에서 명사가 서술어위치³⁾에 놓여 동사화가 발생한 314개의 명사 및 명사구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고대중국어 동사화의 발생 배경에 대해 기존의 편면적인 연구성과를 토대로 좀 더 전면적이고 궁극적인 해답을 찾고자 한다.

1) 楊昭蔚、孔令達、周國光 合編《古漢語詞類活用詞典》海南，海南出版社，1991.(본문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詞典》이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2) 진술화의 이론방면에 대한 연구는 高笑可의 《史記體詞性成分陳述化現象研究》(2013년 북경대학박사학위논문)을 참고.

3) 문장은 의미에 따라 판단문, 묘사문, 서술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대중국어에서 판단문의 서술어는 명사성성분으로 판단동사 ‘是’의 부재에 따른 동사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고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II. 명사유형에 따른 동사화 의미구조

명사가 다른 품사와 구별되는 가장 큰 의미 자질은 공간성이다. 하지만 구성원의 전형성 정도에 따라 개개의 명사가 지니는 공간성의 정도에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즉 비교적 전형적인 명사는 공간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비전형적인 명사는 공간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데, 동사화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전형적 명사에서 동사화가 쉽게 발생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張伯江(1994)은 공능언어학적 시각에서 이를 이론화시킨 바 있는데, 생명도가 낮은 명사가 생명도가 높은 명사보다, 추상명사가 구체명사보다, 無指明사가 有指明사보다 기능상의 이동, 즉 품사의 전환이 쉽게 발생함을 밝힌 바 있다.⁴⁾ 하지만 실제로 고대중국어의 동사화 용례에 적용시켜보면, 이론과 실체가 잘 부합하지 않는데, 비교적 공간성이 높은 고생명도의 명사, 구체명사, 有指明사 또한 빈번하게 동사화가 발생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은 고대중국어에서 동사화가 발생하는 원인이 명사내부의 공간적 요소뿐만 아니라 통사적, 화용적 방면에서의 외부적 요소도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명사에서 동사로 입시 전환 용례가 있는 표제어 314개를 대상으로 명사의 의미유형에 따라 인물, 동식물, 器具, 衣食, 건물/장소, 신체, 자연, 추상명사로 나누고⁵⁾, 각 유형별로 동사화의 의미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인물명사와 동식물명사

인물명사는 사람과 관련된 신분이나 직분뿐만 아니라 호칭, 인칭대명사, 고유명사 등을 포함한다. 인물명사가 서술어의 위치에서 동사화 될 때, 비교적 단일한 의미구조를 띠는데, 동사화 하면서 새로이 생성되는 동사는 대부분이 관계동사류⁶⁾이

4) 張伯江, 方梅《漢語功能語法研究》南昌, 江西教育出版社, 1996, 203-210쪽 참조.

5) 본 분류는 기본적으로 張文國의 《古漢語的名動詞類轉變及其發展》(2005)에 따르고 분석의 편의를 위해 더욱 세분하였다.

6) 관계동사는 크게 繫詞類(是, 爲)와 准繫詞類로 나뉘며, 准繫詞類는 다시 認爲類, 稱爲類, 猶若類로 나누어진다. 상세한 사항은 李昭東〈隱含으로 인한 陳述化구조 연구〉(《중국어학연구》43集(2011))을 참고.

다. 모두 55개의 표제어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詞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미구조를 함께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婦(像婦人)2.故(把~看作故人)3.寡(使~成爲寡婦)4.孤(使~成爲孤兒)5.夫人(把~看作夫人)6.爾(①用爾稱呼②用爾稱呼~)7.獨(使~成爲孤獨者)8.敵(與~爲敵)9.帝(①爲帝/稱帝②使~爲帝)10.臣(①稱臣/爲臣/盡爲臣之道②給~做臣)③使~爲臣④以~爲臣)11.臣妾(①做奴隸②使~成爲奴隸)12.彼(成爲彼)13.霸(①稱霸②把~稱霸③使~稱霸自)14.老(以~爲老)15.將(①做大將②使~做大將)16.劉預(使~成爲像劉預那樣傀儡皇帝)17.侶(以~爲侶)18.母(①做養母②以~爲母)19.奴(以~爲奴)20.妻(使~做妻子/娶~爲妻子)21.妾(把~作爲奴婢)22.親(把~看作父母)23.汝(用你稱呼)24.嫂(稱~爲嫂嫂)25.使(以~爲使者)26.相(①爲相②使~爲相)27.吾(把~看成自己)28.吳王(使~成爲吳王)29.祖(把~看作祖先)30.主(①爲主②把~作爲主)31.質(①做人質②以~做人質③讓~爲人質)32.正(爲正-做長官)33.賊(以~爲賊)34.長(①做長官②以~爲長者)35.幼(把~當作年幼人)36.夷(以~爲夷)37.夷狄(以~爲夷狄)38.兄(稱~爲哥哥)39.王(①爲王/成就王業②爲王/做王)40.聖(成爲聖人/及於聖人)41.殿(使~爲殿)42.父(①行父道②以~爲父)43.侯(①封侯②使~爲侯)44.夫(具有男子的氣質/像個丈夫)45.人(①效法人②稱爲人③使~成爲普通人)46.君(①行君道②做君主/君臨③使~爲君④以~爲君)47.子(①行子道②使~爲子③把~看作子女)48.友(①交朋友②跟~交朋友③使~成爲朋友④以~爲友)49.室(①娶妻室②爲~娶妻)//50.客(①以賓客之禮招待②使~爲客)51.賓(招待賓客)52.民(得到百姓)53.師(①駐軍/用兵②做~的老師③以~爲老師)54.軍(①指揮軍隊②攻打)55.我(自以爲是)

“N₁+N₂”의 술(목)구조에서 명사서술어가 동사화 한 뒤 나타내는 의미구조는 일반적으로 “(P+N₂)+V+N₁”, “(P+N₁)+V+N₂”와 “N₁+V”의⁷⁾ 세 가지 경우이다. 인물명사일 경우, 세 번째 형태는 나타나지 않으며 하나의 표제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새로이 생성되는 동사는 거의 대부분이 관계동사인데, 1에서 41까지의 표제어가 모두 “像, 看作, 成爲, 當作, 做, 爲, 稱(呼)” 등의 관계동사를 내포하고 있다. 표제어 42에서 50까지의 의미구조를 보면 생성된 동사가 직접적인 관계동사는 아니지만 모두 관계동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父

7) 여기서 P는 개사뿐만 아니라 사역동사도 해당이 되며, N₁은 동사화가 발생한 명사를, V는 동사화로 생성된 동사, N₂는 목적어를 가리킨다.

(42)'의 의미구조를 보면 “行父道(아버지의 도를 행하다)”라 하였는데, 이는 사실 “像父(아버지다움)”의 의미를 미화한 것에 불과하다.

- (1) 孔子對曰, “君君, 臣臣, 父父, 子子.” 《論語·顏淵》
 (공자가 대답하기를 “임금은 임금다워야, 신하는 신하다워야,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 하였다)
- (2) 古之人, 天而不人 《莊子·列御寇》
 (옛사람들은 하늘을 닮으려 했지, 사람을 닮으려 하지 않았다)

예문(1)은 고대중국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인데, 관계동사 ‘爲(되다)’ 혹은 ‘像(답다)’이 생략된 형태이다.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父’뿐 아니라 ‘君(46)’, ‘臣(10)’, ‘子(47)’ 역시 마찬가지이다. ‘人(45)’을 “效法人(사람을 본받다)”이라 하였는데, 예문(2)에서 알 수 있듯이 일차적 의미는 “像人(사람을 닮다)”이라 할 수 있으며, ‘侯(43)’, ‘夫(44)’를 각각 “封侯”, “具有男子的氣質”로 나타내었는데, “作侯(侯로 삼다)”, “像夫(사내답다)”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友(48-交朋友)’, ‘室(49-娶妻室)’ 역시 “爲友(친구가 되다)”, “作妻(처로 삼다)”의 의미로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상기했듯이, 인물명사가 동사화 할 때 그 의미구조는 개사를 동반한 “(P+N₂)+V+N₁”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포함하고 있는 개사의 종류로는 ‘以’, ‘把’, ‘用’, ‘跟’ 등이며, 사역동사인 ‘使’역시 준개사의 역할로 자주 내포되어 있다. 이들 개사는 관계동사와 마찬가지로 고대중국어에서 생략 혹은 隱숨이 자연스러운 성분으로, 이들의 생략과 隱숨이 명사술어, 명사부사어, 사동용법, 意動용법, 爲動용법 등의 다양한 술어들을 만들어 냈듯이, 인물명사 대부분의 동사화 역시 이들 관계동사의 생략과 隱숨에 기인한다.

위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물명사에 해당되는 55개의 표제어 가운데 50개 표제어의 동사화 의미구조가 관계동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해당 표제어는 관계동사와의 의미관계상 止事格을 나타내며, 그 외의 나머지 5개의 표제어는 受事格과 公구격을 나타낸다.⁸⁾

8) 표제어 53의 ‘師’는 동사화 하여 受事格과 止事格의 두 의미격을 가지는데, 이처럼 하나의 표제어가 두 개 이상의 의미구조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수치를 얻기가

- (3) 祈以幣更, 賓以特牲. 《左傳·襄公9》
(기도는 재물로써(牛羊을) 대신하고, 손님 접대는 숫컷의 희생을 쓴다)
- (4) 入而能民, 土於何有? 《左傳·僖公9》
(들어가 백성을 얻는다면 땅이 어찌 대수이겠는가?)
- (5) 善克者不戰, 善戰者不師, 善師者不陣. 《鹽鐵論·本議》
(잘 이기는 자는 싸우지 않으며, 잘 싸우는 자는 병사를 쓰지 않으며, 병사를 잘 쓰는 자는 진을 치지 않는다)
- (6) 祝聃射王中肩, 王亦能重. 《左傳·桓公5》
(祝聃이 왕의 어깨를 쏘아 맞추었는데, 왕은 그래도 군을 지휘하였다)
- (7) 子絕四, 毋意, 毋必, 毋固, 毋我. 《論語·子罕》
(공자는 네 가지를 하지 않았는데, 생각대로 하지 않았고, 반드시 해야함이 없었으며, 고집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옳게 여기지 않았다)

‘客(50-以賓客之禮招待)’, ‘賓(51-招待賓客)’, ‘民(52-得到百姓)’, ‘師(53-駐軍/用兵)’, ‘軍(54-①指揮軍隊②攻打)’은 위의 예문(3)~(6)에서 알 수 있듯이, 의미구조상 내포하고 있는 동사가 관계동사가 아닌 ‘招待’, ‘得到’, ‘駐軍’, ‘用兵’, ‘指揮’, ‘攻打’와 같은 일반동사이며, 해당 표제어는 이들 동사와의 의미관계상 受事格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 (7)에서 ‘我’는 “自以爲是(스스로를 옳다 여기다)”의 의미구조로 일종의 공구격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동식물명사의 동사화에 대해 살펴보자. 동식물 명사는 동물이나 식물의 전체 및 부분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雉(獵取野雞) 2. 蠶(養蠶) 3. 蹇(騎跛驢) 4. 白牢(享以白牢) 5. 桑(采桑) 6. 苗(①長苗②以~爲苗) 7. 茅(割草) 8. 芽(發芽/長芽) 9. 薪(①砍柴②把~當作火柴) 10. 蔬(種蘇菜) 11. 蕘(采割柴草) 12. 芻(割草) 13. 實(①結果實②以~爲果實) 14. 藿(收取藿) 15. 華(①開花②以~爲華) 16. 草菅(把~視爲草菅) 17. 糝(把~弄成碎屑) 18. 雄(①稱雄②以~爲雄) 19. 蜃(變成蚯蚓) 20. 蟲(順乎動物生性)

동식물명사는 인물명사에 비해 동사화 용례가 적으며, 의미구조에 있어서 止事格이 아닌 동작의 객체 혹은 대상이 되는 受事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受事格

힘들다. 본문에서는 단지 첫 번째 의미격에 따라 표제어의 의미격 빈도를 파악하기로 한다.

을 나타내는 표제어에 내재된 동사를 살펴보면 ‘取’류(3례: 獵取, 采, 收取), ‘長’류(2례), ‘割’류(4례: 割², 斫, 采割), 기타동사(養, 騎, 種, 開)로 구분되며, 이들 동사는 그 당시 언어사용자들의 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표제어와 의미상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取’류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사냥에서 얻을 수 있는 전형적인 것(雉)이나 유용한 동식물들(桑, 藿)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당시 언어사용자들은 “雉, 桑, 藿”를 떠올리면 ‘取’하는 대상으로 파악을 했던 것이다. 나머지 유형의 동사들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器具명사나 衣食명사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實(13)’은 受事格과는 좀 다른데, 동작의 객체가 아니라 동작(結)과 그 동작으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물을 나타내고 있다. 일종의 결과격이라 할 수 있는데, 건축명사군에서 상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이외에 1개의 공구격(4. 白牢)이 존재하며, 16에서 20까지는 관계동사와 의미관계를 가지는 止事格을 나타내고 있다.

- (8) 雉兔者, 往焉 《孟子·梁惠王下》
(꿩과 토끼를 잡으려는 자들이 거기에 간다.)
- (9) 唯蟲能蟲, 蟲能天. 《莊子·庚桑楚》
(오직 동물만이 동물다울 수 있고 동물만이 하늘을 닮을 수 있다)

예문(8)의 ‘雉’와 ‘兔’는 “獵取雉兔(꿩과 토끼를 잡다)”라는 의미의 受事格이 되며, (9)의 ‘忠’은 “順乎動物生性(동물의 본성을 따르다)”의 의미로 나타내었지만, 일차적으로는 ‘像蟲(동물답다)’의 의미로 止事格을 나타낸다. 동식물명사는 인물명사에 비해 명사의 속성이 더욱 더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의미격과 관련이 있다. 止事格에서 관계동사는 명사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의미자질도 갖추고 있지 않은 반면, 受事格을 나타내는 명사는 그 속성이 바로 내포된 동사에 드러나고 있다.

2. 器具명사와 衣食명사

器具명사는 각종 기물들을 광범위하게 가리키는데, 器具명사가 서술어의 위치에서 동사화될 때 의미구조상 내포하고 있는 동사는 해당 器具명사의 용도를 주로 나

타낸다. 모두 56개의 표제어로 인물명사에 이어서 높은 동사화 빈도를 보인다.

1.竿(用竹竿掛起/挑起)2.棺(以棺殮屍)3.壺(用壺盛)4.椀(用椀盛放)5.簞(以單盛放)6.畚(用畚裝載)7.筆(用筆記載)8.鞭(用鞭抽打)9.兵(用兵器殺人)10.鍵(以鍵關住)11.籠(用籠裝)12.爐(冶煉)13.帷(以帷帳遮住)14.柙(用柙裝)15.重幣(以重幣賄賂)16.輿(用車子裝)17.罾(用罾捕捉)18.刃(用兵刃殺)19.囊(用囊盛裝)20.貨(用財物收買)21.巾(用毛巾覆蓋)22.籍(在簿冊上登記)23.簿(在簿登記)24.俎豆(①置於俎豆②崇拜/祭祀)//25.豆(擺設豆器)26.車(乘車子)27.壘(拿著酒杯)28.輦(①乘輦②用車裝運)29.琴(彈琴)30.席(①鋪席子②以~爲席子)③給~做席子/提供席位)31.梯(架梯)32.弦(彈奏琴瑟)33.舟(乘舟)34.牖(開個窗戶)35.硯(製成石硯)36.械(帶上脚鑲手铐)37.簫(吹簫)38.耜(修理農具)39.軾(①扶軾②向~扶軾)40.表(①樹立標記/做表率/做年表②以~爲表)//41.銘(爲~做銘文)42.蠟(使~爲燭)43.觚(像觚/叫做觚)44.寶(以~爲寶)45.材(成材)46.劍(像夾劍一樣夾著)47.鑑(以~爲鑑)48.燼(燒成灰燼)49.經(作爲~的經/縱向排列)50.緯(橫向排列)51.器(①像器②把~看作器具)52.藥(以~爲藥)53.物(①看到物/當作物/擁有物②使~成爲物③把~當作物)54.箕(像箕)55.戟(使~如戟)56.鉤鑲(以~作爲鉤鑲)

1에서 24까지는 그 의미구조상 “P+N₁+V+N₂”의 형식이 되는데, 이 때 N₁은 동사와의 의미관계상 대부분 공구격이 되기도 하나 ‘籍(22)’, ‘簿(23)’, ‘俎豆(24)’처럼 장소격이 되기도 한다. ‘爐(12)’은 《詞典》에서 ‘冶煉(제련, 연마하다)’로 풀었는데, 단지 “爐(화로)에서 제련하다”에서 ‘爐(화로)’라는 장소의미를 생략했을 뿐이다. 25에서 40까지는 “V+N₁”의 의미구조로 受事格을 나타내는데, 동사는 해당 명사의 기능 혹은 속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동작을 나타낸다. 41부터 56은 모두 관계동사를 내포하고 있는 止事格이 된다. 다른 명사유형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席(30)’, ‘表(40)’처럼 하나의 표제어가 하나의 의미격에 국한되진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같은 표제어라 할지라도 동사화가 발생하는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10) 若於齊, 則未有處也. 無處而餽之, 是貨之也. 《孟子·公孫丑下》

(제나라에서는 일정한 거처(신분)가 없었는데, 거처(신분)가 없는데도 받았다면, 이것은 나를 파는 것이다)

(11) 三之日于耜, 四之日舉趾 《詩經·豳·七月》

(3월에 쟁기를 수리(준비)하고 4월에 밭을 간다)

(12) 褚師出. 公戟其手, 曰, “必斷而足! 《左傳·哀公25》

(褚師가 나가자 공은 팔을 창처럼 하고는 “반드시 너의 다리를 끊어버릴 것이다”라 하였다)

상기했듯이, 공구나 受事格을 나타내는 명사가 동사화 될 때, 동사의미는 해당 명사가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혹은 관계가 가장 밀접한 동작을 나타낸다. 예(10)의 ‘貨’는 본래 ‘물건’, ‘재화’의 명사 의미지만, 여기서는 “用財物收買(재화 혹은 물건으로 사다)”라는 의미로 동사화 하였는데, ‘재화’는 ‘사고, 팔다’라는 동작의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예(11)을 보면, 명사 ‘耜’는 쟁기의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修理農具(농기구를 수리하다)’의 의미로 동사화 하였다. 일반적인 器具명사의 동사화 용례로 볼 때, “쟁기로 밭을 갈다” 정도의 의미가 되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앞, 뒤 문맥에 의해 임시적으로 ‘수리하다’ 혹은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예(12)의 ‘戟’역시 비교적 전형적 器具명사인데, 여기서는 “使其手如戟(손을 창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다)”의 의미로 止事格을 나타내고 있다.

衣食명사는 입고, 먹는 대상을 가리키는 명사군인데, 서술어의 위치에서 거의 대부분이 受事格으로, 먹고 마시는 동작에 대한 대상물을 나타내고 있다.

1.羹(煮羹)2.穀(吃糧)3.麥(吃麥子)4.酒(喝酒)5.毒(放毒)6.飯(使~吃飯)7.餌(設餌引誘)8.章甫(戴禮帽)9.幘(戴頭巾)10.縞素(穿喪服)11.白衣冠(穿戴白色衣帽)12.朝服(穿朝服)13.衰經(穿喪服)14.帶(①束腰帶②束扎③以~爲帶)15.儒服(穿儒服)16.衣(①穿衣②穿衣③使~穿衣)17.襪(穿襪子)18.襚(爲~(死人)穿衣)19.素服(穿素服)20.衫(穿襯衫)21.履(爲~穿上鞋子)22.甲(①披甲②爲~披甲)23.端(穿禮服)24.茗(喝茶)25.纓(用纓捆綁)26.肉(使~長肉)27.袖(納入袖內)//28.魚肉(以~爲魚肉)29.醢(①把~做成肉醬②使~成爲肉醬)30.腊(做成乾肉)31.脯(把~作爲肉乾)32.襟(以~爲襟)

1에서 27까지가 먹고, 입는 대상을 나타내는 표제어로, 26, 27을 제외하면, 모두 의미상 가장 밀접한 동작인 “먹고, 입다”의 의미로 동사화 하고 있다. 28에서 32는 衣食명사들이지만, 먹고 입는 속성과 상관없이 관계동사를 포함하는 止事格

으로 동사화 하였다.

(13) 吾見申叔, 夫子所謂生死而肉骨也 《左傳·襄公22》

(내가 申叔을 보았는데, 이 분은 소위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뼈에 살이 돌아나게 하는 자이다)

(14) 妾請子母俱遷(江南), 毋爲(秦)所魚肉也 《史記·張儀列傳》

(저는 우리 母子가 강남으로 달아나 진나라의 魚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13)에서 ‘肉’은 ‘고기’, ‘살’의 의미가 “使骨長肉(뼈에 살이 돌아나다)”의 의미구조로 전환되었다. 고기는 속성상 먹는 대상으로, “고기를 먹다”와 같은 동작 의미로 동사화 할 가능성이 많지만 여기서는 전후의 문맥에 의해 ‘생겨나다’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4)에서는 ‘肉’을 포함하는 ‘漁肉’이 “以汝爲魚肉”의 의미로 止事格을 나타내어 같은 글자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구조로 동사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건축/장소명사와 신체명사

건축/장소명사는 각종 인위적인 건축물과 작게는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집, 숙소 등에서부터 크게는 도시, 나라를 포함하는 장소 명사들을 가리킨다. 모두 33개의 표제어에 각 1개 이상의 동사화 용례가 보이는데, 구체적인 의미구조는 아래와 같다.

- 1.防(在~築堤)2.溝(①挖溝②挖溝/溝通)3.洞(挖洞)4.堰(築堰堵住)5.穴(①打洞②鑿洞)6.屋(建築房屋)7.室(蓋房子)8.隧(挖隧道)9.牆(做牆)10.橋(架橋)11.廬(①建廬②使~變成廬)12.級(鑿級)13.壁(築營駐紮/藏在壁中)14.巢(①築巢②在~築巢)15.床(安床/在床睡覺)16.城(①築城②在~築城)17.都(建都/設都)18.國(①爲國/建國②使~立國)19.家(①安家②在~安家)20.邦(①建立國家②在~建立國家)21.邑(①建邑②使~建邑)//22.門(守門/攻門)23.闔(把守小門)24.階(①用階梯②把~作爲階梯③爲~準備階梯)25.郡邑(施行郡縣制)26.鄙(①封在邊邑②使~成爲邊邑③把~視爲邊邑)27.郊(處郊外)28.館(①止宿/寓居②到賓館省聞③讓~住賓館④爲~築館)29.廟(在宗廟裡祭祖)//30.府(囊括)31.夏(①安於華夏習俗②使~屬於夏)32.中國(把~看作華夏)33.東封(把~作爲東封)

건축/장소 명사의 동사화는 거의 대부분이 “V+N₁”의 의미구조를 띠지만, 기타명사처럼 의미격상 受事格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城(16)’은 동사화 하여 ‘築城’의 의미를 나타낸다. ‘城’이라는 것은 만들어서(築) 완성된 결과물을 뜻한다. 따라서 ‘築城’은 동작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고, ‘城’은 의미격상 일종의 결과격이라 할 수 있다. 1에서 21까지가 모두 이와 같은데, 내포되어 있는 동사 “築, 挖, 鑿, 做, 架, 建, 安”등은 모두 해당명사가 만들어지기 위해 참여했던 동작이며, 명사에 따라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다를 뿐, 모두 ‘만들다(作)’라는 공통 의미를 명사내부에 이미 가지고 있다. 즉 이들 명사는 “시작-과정-완성”의 의미를 가진 하나의 현상체라 할 수 있으며, 서술어의 위치에서는 바로 이러한 현상체가 생겨나고 존재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22에서 29까지는 해당명사가 지니는 기능적 특징에 따라 受事格 혹은 공구격, 장소격 등의 의미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30에서 33은 기타 명사군에서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관계동사와 止事格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15)十二月癸亥,門其三門.《左傳·襄公9》

(12월 계해일에 3개의 성문을 공격하였다)

(16)居楚而楚,居越而越,居夏而夏,是非天性也,積靡使然也.《荀子·儒效》

(楚에 살면 楚인이 되고, 越에 거하면 越인이 되고, 夏에 거하면 夏인이 되는 것은 천성이 아니라 습관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門(22)’은 동사화 하여 “守門/攻門”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전쟁이 일상이었던 고대 중국에서 사람들은 ‘門’에 대해 지키고 공격하던 대상으로 인지했던 것이다. 예 (15)에서 ‘門’은 ‘攻門’의 의미를 나타내며, (16)에서 ‘夏’를 《詞典》에서 “安於華夏習俗(夏나라의 관습에 익숙하다)”의 의미로 나타내었는데, 단지 “(진정한)夏인이 되다”라는 의미를 미화시킨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신체명사는 각종 사람의 신체기관을 나타내는 명사군으로, 22개의 표제어에서 동사화 용례가 나타나고 있다. 器具명사와 유사하게 신체기관의 기능과 관련된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1.心(①關心②心懷)2.首(頭向着/爲首)3.身(親身施行)4.容(裝飾/打扮)5.脈(給~診脈)6.根(①扎根②以~爲根)7.翅(展翅)8.角(抓住~的角)9.屍(①陳屍/收

屍②爲~立屍)10.手(①用手取/拿/擊殺②拱手⁹⁾)11.足(用脚踏)12.肘(用肘碰觸)13.翼(用翅膀孵化)14.目(以目示意/用眼看/注視)15.面(表現在臉上)16.貌(表現在外表上)17.腰(佩于腰間)18.毛(長著毛)19.汗(使~出汗)//20.本(以~爲本)21.肝(把~當成肝)22.股肱(輔佐/捍衛)

22개 중 17개(1~17)의 표제어가 신체 기관의 기능과 관련된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心(1)’과 ‘首(2)’는 마음과 머리의 기능과 상관된 동작 ‘關心(관심을 가지다)/心懷(생각하다)’, ‘頭向着(머리를 향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器具나 신체기관의 기능 및 관련된 동작에 대한 인식은 지역별,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屍(9)는 고대 중국에서 간신, 적자의 시체를 진열하여 백성들에게 보여 미연을 방지하거나 전쟁터에서 죽어 널려 있는 시체를 수습하는 동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동사화 하여 ‘陳屍(시체를 진열하다)’, ‘收屍(시신을 수습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17) 孟子曰, “堯舜, 性之也, 湯武, 身之也, 五霸, 假之也. 《孟子·盡心上》
(맹자가 말하기를 “堯舜은 본성대로 하였으며, 湯武는 몸소 행하였으며, 五霸는 (仁의 이름을) 빌렸을 뿐이다”라 하였다)

(18) 君子之於子, 愛之而勿面, 使之而勿貌, 導之以道而勿彊 《荀子·大略》
(군자는 자식을 대함에 사랑하나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멀리 보내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도로 인도하되 억압하지 않는다)

예(17)에서 ‘身’은 《詞典》에서 ‘親身施行(몸소 시행하다)’로 풀이하였는데, ‘以身施行’과 같은 의미로 도구격을 나타내며, (18)의 ‘面’, ‘貌’는 각각 ‘表現在臉上’, ‘表現在外表上’의 의미로 일종의 장소격을 나타내고 있다.

汗(19)의 동사화 의미구조는 이들 명사의 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出汗(땀이 나다)’에서 동작을 나타내고 있는 ‘出’은 ‘汗’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즉 흘러 나와야 땀으로서의 인식이 가능하므로, 둘의 관계는 건축/장소명사와 마찬가지로 동작과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0에서 22까지는 모두 동사화 하여 관계동

9) 원문은 “揖所與立, 左右手”로 《論語·鄉黨》의 구절인데, “좌우로 공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朱熹의 《論語集註》에 의하면 “손을 좌로 우로 한다(揖左人則左其手, 揖右人則右其手)”라고 하였으니, 동사화 용례에서 제외하기로 함.

사와 止事格의 의미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4. 자연명사와 추상명사

자연명사는 각종 자연현상과 자연물 등을 가리키며, 모두 19개의 표제어에서 동사화가 나타나고 있다.

1. 雨(下雨) 2. 雪(下雪) 3. 風(①吹風/遇風/刮風 ②吹拂) 4. 雷(打雷) 5. 暉(陽光照會) 6. 冰(結冰) 7. 水(①發生水災 ②用水灌) 8. 火(①發生大火 ②發生火災 ③使~燒) // 9. 泉(汲泉) 10. 波(隨波逐流) 11. 木(用木料建築) 12. 日(爲~設置太陽) 13. 月(設置月亮) 14. 星(爲~設置星辰) 15. 辰(爲~設置星辰) // 16. 地(像地那樣寬) 17. 灰(使~成爲灰) 18. 墟(①變成廢墟 ②使~變成廢墟) 19. 天(①順天/天佑/順其自然 ②以~爲天)

자연현상의 대부분은 보통 해당 명사가 동작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에서 6에 해당하는 ‘雨’, ‘雪’, ‘風’, ‘雷’, ‘暉’, ‘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들 명사를 떠올리면 ‘내리다(下)’, ‘불다(吹)’, ‘치다(打)’, ‘비치다(照)’, ‘얼다(結)’의 동작을 함께 떠올린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명사는 명칭과 동작의 일체형으로, 명사내부에 이미 상당한 진술성을 내포하고 있다. “發生水災(水災가 발생하다)”, “發生大火(火災가 발생하다)”의 의미구조를 띠는 ‘水(7)’, ‘火(8)’는 먼저 명사 자체적으로 ‘水災’, ‘火災’라는 의미로 의미 확장을 한 상태에서 동사화 한 형태인데, ‘水災’, ‘火災’ 역시 동작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명칭과 동작의 일체형으로 볼 수 있다. 자연명사 가운데 관련된 기능이나 전후문맥에 의해 동사화가 발생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19) 知伯從韓、魏兵以攻趙，圍晉陽而水之 《戰國策·趙》

(知伯이 韓、魏兵을 따라 趙를 공격하여, 晉陽을 포위하여 수공을 가하였다)

(20) 浴乎沂，風乎舞雩，詠而歸。《論語·先進》

(沂水에서 목욕하고 舞雩에서 바람 쐬고 읊조리며 돌아온다)

(21) 曾不知創宇宙作萬象，月而日之，星而辰之。《仙掌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달, 해, 별을 둔 것을 알지 못했다)

《詞典》에서 ‘水’를 또한 ‘用水灌(물을 붓다)’이라 하였는데, 이는 예(19)에서처럼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물로 공격함을 의미한다. 고대중국어에서는 많은 어휘들이 전쟁과 연관성을 띠는데, ‘水’의 기능 중 하나를 당시 사람들은 ‘水攻’으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사화가 발생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20)에서 ‘風’이 동사화 하여 ‘遇風(바람을 쐬다)’의 의미구조를 띠는 것 역시 동일한 논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 (21)에서 ‘月’, ‘日’, ‘星’, ‘辰’은 “設置(~만들다/두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들 명사의 내부 의미와 전혀 연관성이 없이 전후 문맥에 의해 동사화가 발생한 경우이다. 16에서 19까지의 표제어는 동사화 하여 관계동사와 止事格의 의미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추상명사는 명사의 구성원 중에서 비전형적인 유형으로 기타 명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성이나 동작 등의 진술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는 실제 문헌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데, 모두 80개의 표제어에서 1례 이상의 용례가 나타나고 있어, 동사화의 용례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동사화 한 뒤의 의미구조에 따라 6가지로 세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방향류: 1.東(①向東/向東去②使~向東) 2.西(①往西/向西/駐在西邊②使~向西) 3.南(①向南/往南②使~向南) 4.北(①向北去②使~向北) 5.左(①向左/立於左②命令向左) 6.右(①站在右邊②使~向右) 7.先(①走在前面②在先/先做③使~在先) 8.後(①落在後面②走在/放在~後面③使~後) 9.外(①使~向外/在外②認爲~在外) 10.前(①在前/上前/向前②使~向前/在前) 11.上(①居於~之上②使~居上)

결과류: 12.境(接境) 13.壤(跟~接界) 14.界(①分界②以~爲界) 15.疆(劃定~的邊疆) 16.域(劃分區域/以疆界限制) 17.類(分類) 18.陣(列陣/布陣) 19.等(使~有等級差別) 20.黨(結黨) 21.群(使~會合)

먼저, 방향류에 포함되어 있는 11개의 명사는 동사화 하여 ‘向’, ‘走’, ‘往’, ‘立’, ‘在’, ‘落(치지다)’, ‘放(두다)’ 등의 이동 혹은 위치를 나타내는 동사의미를 나타내는데, 방향은 본래 이동과 위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구조로의 동사화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전환이라 할 수 있다.

(22) 謂二三子歸而不歸, 處而不處, 進而不進, 退而不退, 左而不左, 右而不右, 身斬, 妻子鬻。《國語·吳語》

(이르기를 “저들에게 돌아오라 했으나 돌아오지 않았고 멈추어라 했으나 멈추지 않았고 전진하라 했으나 전진하지 않았고, 왼쪽으로 향할 것을 명령했으나 향하지 않았고 오른쪽으로 향할 것을 명하였으나 향하지 않아 몸은 죽고 처자는 팔려갔습니다”라 하였다)

여기서 ‘左’, ‘右’는 각각 2번 출현하고 있는데, 모두 ‘向左’, ‘向右’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전자의 경우는 ‘명령하다(命令)’라는 의미가 더 추가되어 있다. 이는 방향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전후 문맥에 의해 내포된 의미로 뒤에 언급할 다섯 번째 기능류와 같은 유형이다.

두 번째, 결과류는 동사화 하여 ‘分(나누다)’, ‘接(접하다)’, ‘劃(긋다)’, ‘布(펴다)’, ‘有(두다)’, ‘結(맺다)’, ‘會(모이다)’의 동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 동사는 표현이 다를 뿐 하나의 공통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경계, 구역을 나타내는 ‘境’, ‘壤’, ‘界’, ‘疆’, ‘域’ 등의 명사는 나눔(分)이라는 동작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로, 건축명사의 ‘城’과 같은 하나의 현상체인 것이다. ‘類’, ‘陣’, ‘等’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명사들은 동사화 하여 관련 동작에 해당하는 각각의 동사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를 만들다’의 의미로 통합될 수 있다. 이는 바로 이들 명사들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완성품임을 반증하기도 한다.

일(事)류: 22. 役(①發生戰爭②以~爲僕③給~做僕役) **23. 喪**(爲~服喪/辦喪事) **24. 齊語**(說起過語) **25. 楚**(說楚國話/適應楚國的習俗) **26. 訛言**(傳布謠言) **27. 農**(務農) **28. 禮**(①以禮待遇②使~遵守禮法) **29. 業**(①使~建立工業②以~爲業) **30. 戰功**(建立戰功) **31. 功**(①成功/產生功效②以~爲功) **32. 威**(樹立威信(威望)/威懾) **33. 福**(①受福②使~得福) **34. 膏澤**(使~得到恩惠) **35. 澤**(施子恩澤) **36. 禍**(①受禍②使~受禍③以~爲禍) **37. 跡**(取得業績) **38. 惠**(使~受惠/給~施惠) **39. 患**(使~受到禍患) **40. 刑**(①用刑處罰②合刑罰/做示範③以~爲法則) **41. 殃**(①遭殃②使~受殃) **42. 道**(①施行/取道②以~爲道) **43. 德**(①有德/施德②使~得到恩德/施子恩德/感恩③以~爲德④對~感恩) **44. 義**(①有義②根據義樹立) **45. 精**(體現精氣) **46. 封建**(施行封建制) **47. 佛**(佛學盛行) **48. 黃老**(黃老之學盛行)

세 번째, 일(事)류는 추상명사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의 명칭(명사)으로 대표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동작-

명칭의 일체형으로 내부에 강한 동사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그만큼 동사로 쉽게 전환 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몇 개의 표제어를 살펴보면, 먼저 ‘役(22)’은 명사로 ‘전쟁’의 의미를 갖는데, 전쟁은 이미 하나의 총괄적인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화 하여 현재 이러한 동작이 행해지고 발생하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띠게 되는 것이다. ‘齊語(24)’와 같은 ‘말’을 나타내는 명사도 하나의 일(말하다)을 하나의 명칭(말)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禮(28)’ 역시 동작이나 행위의 연속체이며, ‘功’, ‘福’, ‘德’ 또한 하나의 행위 혹은 일이 ‘功’이 되며, 흔히 “福이 있다”라고 하면 “복스러운 사건 혹은 일”이 있음을 뜻하며, 누군가에게 “德이 있다”라고 할 때도 “덕이 있는 행위”가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들 명사는 행위나 일의 연속을 하나의 명칭으로 외연을 삼은 것이다.

일(事)류 명사는 동작의 규모 혹은 구체성에 따라 동작, 행위, 일, 사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 명사가 동사화 될 때 내포되는 동사는 자연적으로 이러한 동작이나 행위를 ‘하다(行)’, 이러한 일, 사건이 ‘발생하다(發生)’, ‘생기다(有)’의 의미를 띠게 된다. 위의 일(事)류 표제어들의 동사화 의미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發生’, ‘做’, ‘服’, ‘務’, ‘說’, ‘傳布’, ‘建立’, ‘產生’ 등의 동사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行(하다)’, ‘發生(발생하다)’, ‘有(생기다)’의 의미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다. ‘禮’를 《詞典》에서 ‘以禮待遇’라 하였는데, 이는 ‘行禮(예를 행하다)’의 의미이다. 일부 표제어에 ‘得’, ‘施’, ‘受’의 동사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역시 동작의 주체와 대상이 바뀔 때 따른 다른 표현일 뿐인데, ‘施’는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한 것이고 ‘受’와 ‘得’은 나에게 어떤 일이 행해진 것일 뿐이다. ‘惠(38)’를 예로 들면, 내가 은혜로운 일을 행했으면 ‘施惠’로, 나에게 은혜가 행해졌으면 ‘受惠’ 혹은 ‘得惠’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기능류: 49. 丹(用紅色塗刷) 50. 靑黃(用靑黃色染) 51. 黔(用黑色染) 52. 稅(徵收賦稅/繳納賦稅) 53. 力(使~用力) 54. 職(①爲~安排職業) 55. 文(策劃花紋) 56. 傳(爲~做傳) 57. 名(①直稱名字/稟報名字/叫出名字 ②稱~的名/聞名於~/從~取得名譽) 58. 祿(①以祿奉養 ②使~受奉祿/賜予奉祿) 59. 益(使~得益) 60. 利(①貪利/牟利 ②取利/給利 ③使~獲利 ④以~爲利 ⑤因~獲利) 61. 爵(①升爵 ②使~得到爵位) 62. 位(①位置確定 ②擔當官職 ③使~得到官位/賜給官位) 63. 官(①任用/主宰 ②使~得到官職/給~授官) 64. 性(按本性實行) 65. 度(①合法度/有法度 ②把~作

爲準則)66.法(①合法②依法懲治③使~成爲法則④以~成爲法則)67.節(合時節)
 기타류:68.年(說出年齡/度過當年)69.日(①記下日期)70.氏(①記氏②以~作爲氏)
 止事류:71.稷(把~當作五穀之神)72.社(把~當作土地之神)73.幅(限制)74.事(把~當作工作)75.勞(把~看作功勞)76.序(爲~做序)77.病(把~視爲疵病)78.靈(使~成爲神靈)79.小識(用得著膚淺的知識)80.小行(用得著細小的德行)¹⁰⁾

네 번째, 기능류는 이들 명사의 기능 혹은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사의미가 부여된 경우인데, 稅(52)는 ‘징수 혹은 납부하다(徵收/繳納)’, ‘力(53)’은 ‘사용하다(用)’라는 동사의미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인해 동사화 하여 이들 의미를 띠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 기타류는 명사내부의 속성과 전혀 관계없이 전후 문맥에 의해 적절한 동사의미가 부여된 경우이며, 마지막 止事類는 타 명사군처럼 동사화 하여 관계동사와 의미관계를 이루는 명사들이다.

(23) 有與疑年, 使之年. 《左傳·襄公30》

(함께 한 사람들이 나이를 의심하여 나이를 말하게 하였다)

(24) 夫民, 生厚而用利, 於是乎正德以幅之. 《左傳·襄公28》

(백성은 생활이 윤택하고 재용이 풍부하기를 바라니, 이에 올바른 덕을 세워 私利를 규제한다)

(23)에서 ‘年’은 ‘나이를 말하다’의 의미인데, ‘年’의 속성과 전혀 상관없이 동사화 의미가 부여된 경우이다. (24)에서 ‘幅(가장자리)’은 《詞典》에 ‘限制(제한하다)’로 나타내었는데, 이에 대해 孔穎達은 “以爲邊幅(가장자리로 삼다)”¹¹⁾라 하였으니 일차적인 의미는 동사와의 의미관계상 止事格이 된다.

이상으로 명사유형에 따른 고대중국어의 동사화 의미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유형

10) 원문은 《莊子·繕性》편의 “道固不小行, 德固不小識”으로 “道本來不是一時一地的片面推行, 德本來不是一知半解的小小見識”의 의미이다. 따라서 ‘小行’, ‘小識’은 관계동사가 생략된 止事格으로 보아야 함. (원문해석은 《文白對照諸子集成·莊子》(1995) 75쪽 참고.)

11) 孔穎達은 “正德以幅之”에 대해 “言用正德以爲邊幅, 使有度”(정덕을 사용하여 리를 가장자리로 삼아서 법도가 있게 한다)로 풀이하였다(李學勤주편 《春秋左傳正義》(1999, 북경대학출판사) 1082쪽 참조).

별로 의미구조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인물명사는 명사 내부 의미와 큰 상관이 없는 指事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동식물명사, 器具명사, 衣食명사, 신체명사는 몇몇 止事格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들 명사의 내부 속성이나 기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동작과 受事格 혹은 공구격, 장소격 등의 의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건축/장소명사는 이들 의미격 외에 동작에 대한 결과격을 많이 나타내고 있으며, 자연명사와 추상명사는 受事格을 나타내긴 하지만 동작 자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추상명사군에는 이러한 동작 자체를 가리키는 일(事)류와 결과격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Ⅲ. 고대중국어 동사화의 발생 배경

고대중국어에서 명사는 동사화 하여 다양한 의미격을 나타내는데, 이는 명사의 유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또한 동사화 발생에 직접적인 배경을 제공한다. 특히 고대중국어에서는 명사내부의 의미구조와 상관없이 동사화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본 장에서는 명사 내부의 의미와의 연관성 유무에 따라 동사화 배경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명사 내부의 의미와 有關한 동사화

공간성과 시간성은 명사와 동사의 내부의미요소를 대표한다. 하지만 모든 명사와 동사가 동일한 공간성과 시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에 따라 공간성과 시간성이 적절한 비율을 이루고 있다. 동사의 의미특징인 시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명사는 비교적 쉽게 동사로의 전환이 일어남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底生命度명사, 無指명사, 추상명사 등이 주로 이러한 구성원이 된다. 고대중국어에서 동사화가 발생하는 명사들과 그 의미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토대로 명사의 내부의미와 有關한 동사화의 발생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명사의 동작 일체형

명사의 동작 일체형은 동작이나 행위, 사건의 전체 과정을 하나의 명사로 가리키거나 해당 명사를 떠올리면 관련 동작이 함께 인지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바람(風)’을 떠올리면 항상 ‘불다’라는 동작이 함께 인지되며, ‘功’을 세운다고 할 때, 이 ‘功’은 사실상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과 과정, 결말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명사의 동작 일체형은 앞에서 분산해서 언급한 바, 일부 자연명사와 추상명사의 구성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雨, 雪, 風, 雷, 暉, 冰, 水(水災), 火(火災)(이상 자연명사) 役, 喪, 齊語, 楚, 訛言, 農, 禮, 業, 戰功, 功, 威, 福, 膏澤, 澤, 禍, 跡, 惠, 患, 刑, 殃, 道, 德, 義, 精, 封建, 佛, 黃, 老(이상 추상명사)¹²⁾

위의 명사들은 동사화 하여 자연스럽게 ‘下(雨/雪)’, ‘吹(風)’, ‘打(雷)’, ‘照(暉)’, ‘結(冰)’, ‘說(語)’ 등의 해당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미를 가지거나 사건이나 행위가 발생하고(發生) 생겨나거나(有) 행위를 하다(行)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는 문장 속에서 서로 다른 행위나 사건이 능동과 피동, 사역의 의미와 결합하여 표현상에 있어, ‘建(세우다-공이 있다)’, ‘受(받다/당하다-나에게 생겨나다), 施(베 풀다~에게 행하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작 일체형 명사는 하나의 동작, 사건을 명사로 이룬 것이니, 다른 명사들에 비해 내부에 상당히 높은 동작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동작성은 바로 동사의 특징인 시간성의 외부적 표현인 만큼 동사로의 전환이 비교적 용이함을 알 수 있다.

2) 명사의 동작 포함형

동작 포함형에 해당하는 명사는 일련의 동작이나 행위를 통해 완성되고 만들어진 완성체를 말하는데, 이들 명사가 동사화 하면 바로 이러한 해당 동작을 나타내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고대중국어에서 동사화가 빈번히 발생하는 ‘城’은 쌓아서(築)

12) 2장의 동사화 의미구조에 따라 분류했으며, 한 표제어에 하나 이상의 동사화 의미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유형에 귀속시킬 수 없지만, 본문에서는 止事類를 제외하고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 가지 유형에 귀속시켜 분류를 진행하였음.

만들어진 완성체이며, 서술어의 위치에서 동사화 하여 ‘築城’의 의미를 나타낸다. 건축명사와 추상명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동식물명사와 신체명사에도 한 레씩 보이고 있다.

實(이상 동식물명사) 汗(이상 신체명사) 防, 溝, 洞, 堰, 穴, 屋, 室, 隧, 墻, 橋, 廬, 級, 壁, 巢, 床, 城, 都, 國, 家, 邦, 邑(이상 건축명사) 境, 壤, 界, 疆, 域, 類, 陣, 等, 黨, 群(이상 추상명사)

열매(實)는 맺히는(結) 동작을 통해 만들어지고, 땀(汗)은 몸 밖으로 나와야(出) 땀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다. 제방(防) 또한 쌓는(築)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무리(群)나 당(黨)은 모이(結/會)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며, 경계(境)는 나누어서(分) 구분지어지는 것이다. 이들 명사가 동사화 하여 만들어지는 의미구조의 공통점은, 만들어지는 동작은 다르지만, 모두 이러한 동작을 통해 하나의 완성체가 생겨나고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명사의 동사화 의미구조는 궁극적으로 “生/有/作N”이 된다.

동작 포함형 명사는 동작 일체형에 비해서는 동작성이 높지 않지만, 뚜렷한 동작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기타 명사들에 비해서 내부에 높은 시간성을 함유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동사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명사의 동작 연관형

명사의 동작 연관형은 명사 내부에 뚜렷한 시간성이 드러나진 않으나, 타 명사와 구별될 수 있는 속성이나 동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이러한 속성이나 동작이 동사화가 되면서 전후 문맥의 도움을 받아 돌출하게 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 눈(目)은 보는 동작을 하는 기관으로, ‘보다(視)’라는 동작과 밀접한 연관성을 띠는데, 이러한 연관성은 동사화 하면서 ‘보다’라는 의미가 생성되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사의 속성이나 동작은, 앞에서 살펴본 바, 해당명사와의 의미 관계상 모두 4가지로 나뉘는데, 의미격에 따른 표제어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① 受事格

賓, 民, 師, 軍(이상 인물명사) 雉, 蠶, 蹇, 桑, 苗, 茅, 芽, 薪, 蔬, 蕘, 芻, 藿, 華, 草, 菅, 糝(이상 동식물명사) 豆, 車, 壘, 輦, 琴, 席, 梯, 弦, 舟, 牖, 硯, 械, 蕭, 軾, 表(이상 器具명사) 心, 首, 身, 容, 脈, 根, 翅, 角, 屍, 毛(이상 신체명사) 泉, 波, 木(이상 자연명사) 門, 閭, 階, 郡, 邑(이상 건축명사) 羹, 穀, 麥, 酒, 毒, 飯, 餌, 章甫, 幘, 縞素, 白衣冠, 朝服, 衰經, 帶, 儒服, 衣, 襪, 襪, 素服, 衫, 履, 甲, 端, 茗, 纓(이상衣食명사) 丹, 青, 黃, 黔, 稅, 力, 職, 文, 傳, 名, 祿, 益, 利, 爵, 位, 官, 性, 度, 法, 節(이상 추상명사)

② 방향격

東, 西, 南, 北, 左, 右, 先, 後, 外, 前, 上(이상 추상명사)

③ 공구격

白牢(이상 동식물명사) 筭, 棺, 壺, 榑, 簞, 畚, 筆, 鞭, 兵, 鍵, 籠, 爐, 帷, 柙, 重, 幣, 輿, 罍, 刃, 囊, 貨, 巾(이상 器具명사) 手, 足, 肘, 翼, 目(이상 신체명사)

④ 장소격

籍, 簿, 俎豆(이상 器具명사) 面貌腰(이상 신체명사) 鄙, 郊, 館, 廟(이상 건축명사) 袖(이상衣食명사)

명사의 동작 연관형은 受事格과 공구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명사 내부의 시간성은 겉으로 보기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해당 명사가 가지는 의미구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눈’, ‘옷’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거의 모든 사전에서 ‘보는 것’, ‘입는 것’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 명사의 의미구조에 잠재되어 있는 이러한 시간성은 문장에서 전후문맥의 도움을 받아야만 드러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명사내부의 시간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동작 일체형이나 포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2. 명사 내부의 의미와 無關한 동사화

일반적으로 명사의 동사화는 명사의 내부 의미에 지니고 있는 일정한 시간성이 語用의 도움 하에 발생하기 마련인데, 고대중국어에서는 명사의 내부의 의미에 무관하게 동사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고대중국어 특유의 통사적 특징 때문인데, 고

대중국어에서 관계동사, 사역동사, 전치사, 접속사 등 어휘의미가 약한 단어들은 생략과 隱습이 일반적이며,¹³⁾ 이들 단어의 뒤에 오는 명사들이 이들 단어의 의미를 껴안으면서 동사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크게 止事類와 非止事類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止事類

止事格은 관계동사와 의미관계가 발생하는 명사의 의미격으로, 해당 명사는 동사화 하여 주로 ‘爲(되다)’, ‘像(답다)’, ‘以爲(여기다)’, ‘稱(칭하다)’ 등의 동사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사실 고대중국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止事類 동사화구조는 판단문의 서술어에 위치하는 명사성성분이다. 하지만 《詞典》에서는 방대한 양 때문인지 동사화의 용례에서 제외시켜 놓았다. 제외하고도 비교적 많은 용례가 보이는데, 표제어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婦, 寡, 孤, 夫, 獨, 敵, 帝, 臣, 臣妾, 霸, 將, 母, 奴, 妻, 妾, 親, 嫂, 使, 相, 主, 質, 正, 長, 兄, 王, 聖, 父, 侯, 夫, 君, 子, 友, 室, 客, 老, 故, 幼, 夷, 夷狄, 人, 爾, 彼, 劉預, 侶, 汝, 吾, 吳王, 祖, 賊, 殿(이상 인물명사) 雄, 虵, 蟲(이상 동식물명사) 銘, 蠟, 觚, 寶, 材, 劍, 鑑, 燼, 經, 緯, 器, 藥, 物, 箕, 戟, 鉤鑲(이상 器具명사) 本肝股肱(이상 신체명사) 地, 灰, 墟, 天(이상 자연명사) 府, 夏, 中國, 東封(이상 건축명사) 魚肉, 醢, 腊, 脯, 襟(이상衣食명사) 稷, 社, 幅, 事, 勞, 序, 病, 靈, 小識, 小行(이상 추상명사)

止事類 가운데, 인물명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인물명사 가운데 특히 신분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父’, ‘子’, ‘君’, ‘臣’, ‘侯’와 같은 신분류는 고대중국어에서 동사화 발생 빈도가 높는데, 이 때문에 학자들은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들에 순서성에 따른 시간성을 명사내부의미로 부여하기도 하였다. 고소가(2013)는 최근의 연구에서 사람은 항상 하나의 신분을 가지게 마련이고, 신분은 또한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성을 가진다고 하였다.¹⁴⁾ 이러한 결론은 충분히 공감할 수

13) 李昭東 〈隱습으로 인한 陳述化구조 연구〉, 《중국문학연구》 43집, 2011, 179-200쪽 참고.

14) 高笑可 《史記體詞性成分陳述化現像研究》, 북경대학박사학위논문, 2013. 69쪽: “一

있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분은 변화하기 때문에 신분명사가 동사화 하여 나타낼 수 있는 동사의미는 “爲(되다)”이다. 위의 표제어에서 살펴보면, 신분명사뿐 아니라 고유명사를 포함하여 모든 명사군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명사가 변화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蚘’는 “爲蚘(지렁이가 되다)”의 의미로 동사화 하였는데, 지렁이가 아닌 것에서 지렁이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변화에 따른 시간성을 신분명사에 국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고대중국어에서 사동용법, 意動용법, 爲動용법 등은 관계동사의 隱속에 따른 통사현상으로 명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 부사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당시 이러한 초품사적 통사현상을 명사 내부의 시간성에서 원인을 찾는 건 무리가 있다.

품사가 아닌 어법위치의 관점에서 볼 때, ‘爲(되다)’의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無指 혹은 類指 명사로 충당된다. 위의 표제어에서 알 수 있듯이, 止事類에 해당하는 표제어의 대부분이 無指명사이며, 일부 대명사나 고유명사, 예를 들어 ‘爾’, ‘劉預’ 등은 “너와 같은 사람”, “劉預와 같은 사람”으로 이미 類化가 된 것이다. 無指명사는 일반 보통명사로 사물의 분류에 따른 구별의미를 가지는데, 바로 이 점이 無指명사가 有指명사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게 동사화가 발생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有指, 無指 등의 개념은 화용론적 술어로 이미 어휘와 통사방면을 벗어난 것이어서 명사자체의 의미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2) 非止事類

명사내부 의미와 관련 없이 동사화가 발생하는 경우 가운데 非止事類에 해당하는 명사는 드문데, 아래의 3가지 의미격에서 보인다.

① 受事格

日, 月, 星, 辰(이상 자연명사) 耜(이상 기구명사) 肉(이상 신체명사) 年, 日, 氏(이상 추상명사)

是身份是可變的, 一个人可以從一个身份變爲另一个身份; 二是理論上來講, 每个人都可能充當某个身份。所以從某人不是某个身份, 到某人做某个身份, 從現實實際到想象的情况, 有差距, 因而也有了時間性。”

② 공구격

我(이상인물명사)

③ 방향격

左, 右(이상 추상명사)

受事格과 방향격에 해당되는 명사들이 내포하고 있는 동사는 각각 '設置(日, 月, 星, 辰-만들다)', '修理(耜-수리하다)', '長(肉-자라다)', '說出(年-말하다)', '記(日, 氏-쓰다)', '命命(명령하다)'와 같은데, 이들 동사는 명사내부의 시간성 유무에 관계 없이 앞뒤 문맥에 의해 동사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設置', '長(자라다)', '說出', '記', '命命'과 같은 동사는 다른 동사들에 비해 어휘의미가 비교적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농기구를 수리하다(修理耜)"의 의미를 나타내는 '耜'는 글자 수가 더욱 제한되는 운문(《詩經》)에 출현하고 있다.

이상으로 동사화가 발생하는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명사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인물명사는 대부분이 명사 내부의 의미와 상관없이 관계동사의 생략이나隱숨에 의해 동사화가 발생하며, 기타 명사군은 명사 내부의 속성이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동작으로 동사화 하였다. 특히 건축명사, 자연명사, 추상명사는 동작 포함형이나 동작 일체형의 동사화 유형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이들 명사 내부의 높은 시간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상기했듯이, 張伯江(2005)은 底生命度명사, 無指명사, 추상명사 등에서 기능의 전환이 쉽게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순수 어휘적 각도에서 말한 것으로 문장 속에서의 통사적, 화용적 방면과는 관계가 없다. 통사적 원인에 의해서 동사화가 주로 발생하는 인물명사류를 제외하면, 고대중국어에서 명사의 동사화는 張伯江의 이론에 비교적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고대중국어에서 대등하게 빈번히 발생하던 명사화와 동사화는 후대로 오면서, 특히 唐代 초기 백화문이 탄생할 무렵, 상반된 노선을 걷는데, 명사화는 현대중국어

의 ‘的’에 의해 명사화표기가 통일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된 반면, 동사화는 몇몇 용례를 제외하고는 사라진다. 이는 고대중국어의 경제적 언어구사적 특징에 의해 일부 어휘의 의미가 약한 단어들에 隱藏되거나, 동작성과 기능성이 강한 명사들을 동사화 시켜 해당 동작이나 기능을 함께 나타내었는데, 후대로 갈수록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요구되면서 동사화가 점점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대중국어에서 동사화는 명사유형에 따라 그 발생배경이 다르다. 먼저 인물명사는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부 의미와 관계없이 고대중국어의 특수한 통사현상, 즉 관계동사의 생략과 隱藏에 의해 동사화가 발생하여 指事格을 나타내며, 그 외의 명사군은 몇몇 指事格을 제외하면 모두 명사내부에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속성과 연관이 높은 동작을 나타내고 이러한 동작과의 의미관계상 受事格, 공구격, 장소격 등의 의미구조를 띤다. 특히 건축명사, 자연명사, 추상명사는 명사의 기능이나 속성과 연관된 동사화뿐 아니라 명사가 동작을 포함하는 동작 포함형이나 명사가 동작을 지칭하는 동작 일체형 동사화가 많이 보인다. 이는 이들 명사군 내부의 시간성이 기타 명사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參考文獻】

- 楊昭蔚、孔令達、周國光 合編《古漢語詞類活用詞典》海南，海南出版社，1991.
 張文國《古漢語的名動詞類轉變及其發展》北京，中華書局，2005.
 馬建忠《馬氏文通》北京，商務印書館，1983/2002.
 宋紹年等《古代漢語知識教程》北京，북경대학출판사，2002.
 楊伯峻、何樂士《古漢語語法及其發展上下》北京，語文出版社，2003.
 金理新《上古漢語形態研究》合肥，黃山書社，2006.
 張伯江 方梅《漢語功能語法研究》南昌，江西教育出版社，1996.
 洪 波〈上古漢語*-s後綴的指派旁格功能〉：《漢語歷史語法研究》，商務印書館，2010.
 陳祝琴《論上古漢語體詞性成分的陳述化》，북경대학석사학위논문，2007.
 呂厦敏《左傳名詞陳述化研究》，북경대학석사학위논문，2010.
 高笑可《史記體詞性成分陳述化現像研究》，북경대학박사학위논문，2013.
 李昭東〈隱藏으로 인한 陳述化구조 연구〉，《중국문학연구》43집，2011.

李昭東 〈《史記》無標記 陳述化구조 연구〉, 《중국문화연구》 제20집, 2012.

李昭東 〈“Np而Vp(Np)”, “Vp(Np)而Np” 陳述化구조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64집, 2010.

【中文提要】

通過分析《古漢語詞類活用詞典》里出現的名詞動用的例子，本文主要考察八類名詞類型的動詞化語義結構以及動詞化發生的動機。絕大部分的人物名詞動詞化之后與關係動詞發生語義關係，并形成止事格。古漢語里詞匯語義較弱的介詞，連詞，使動詞，關係動詞等經常在句中省略或隱含，以引起這樣的止事格動詞化結構。因此，止事類動詞化與名詞內部的語義結構不大關係。

其他動植物名詞，器具名詞，衣食名詞，建築名詞，形体名詞，自然名詞，抽象名詞的動詞化都與名詞內部的語義關係有密切的關係。這些名詞的動詞化按照動詞化發生的動機，可以分為三種類型：名詞-動作一体型，名詞的動作包含型，名詞的功能關聯型。除了人物名詞，其他名詞類型都存在名詞的功能關聯型動詞化。名詞可以發生名詞-動作一体型或名詞的動作包含型動詞化，那麼可以說這個名詞的內部動作性或時間性比較高，因而比較容易發生動詞化。按照本文的分析，名詞類型當中一些建築名詞，自然名詞，抽象名詞類發生這兩種動詞化。

【主題語】

動詞化，時間性，人物名詞，抽象名詞，止事格，隱含

투고일: 2014. 1. 15 / 심사일: 2014. 1. 20~2. 5 / 게재확정일: 2014. 2. 10